예비 유니콘 기업 공정하게 선발

중기청, 국민심사단 평가 30% 반영 기업 최종 선정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K-유니콘기업 선정 최종 평가'에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130인을 선발하며 구성 국내·외 최고 민간 전문평가단 65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유니콘 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진행해 다양한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선발된 심사단은 'K-유니콘기업 프로젝트'에 지원한 기업들을 평가하며, 전문평가단(70%), 국민심사단(30%) 결과를 합산해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60점), ▲해당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길 지지·응원하는 정도(30점), ▲사회공헌 가능성(10점)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기업인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해 시장개척자금을 3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가치 1,000억원~1조원 사이의 예비유니콘은 25개사를 선정해 최대 20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한 아기유니콘200 사업 접수결과, 총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경우에는 총 76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3.04:1을 기록하는 등 창업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심사단 신청자격은 ▲창업·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창업기업 투자경험이 있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투자자 ▲공공 또는 민간 창업 관련 기관에서 창업기업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자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자,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등 전문가 등으로 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투자 및 창업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K-유니콘(www.k-unicorn.or.kr) 또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인원이 130명을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이를 통해 선발된 심사단은 다음달 25일 COEX 컨퍼런스룸에서 아기유니콘 심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심사단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예비유니콘은 6월 말경으로 추가 안내)

신재경 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대표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과정인 만큼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열린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심사단 제도를 운영한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 창업·벤처기업들이 선정 돼 한국이 유니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양재, 창동, 고양 등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6곳과 전주유통센터에서 '김제광활 하우스 햇감자 홍보 판매전'을 진행한다.

'영양 만점' 이것이 광활 햇감자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6곳 · 전주유통센터서 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양재, 창동, 고양 등 수도권 농협유통센터 6곳과 전주유통센터에서 '김제광활 하우스 햇감자 홍보 판매전'을 진행한다.

이 판매전은 지난해 잦은 강우로 인해 파종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은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들에게 전북농산물 '예담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판매전 홍보 상품인 김제 광활 감자는,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토양의 논에서 재배 돼 풍부하게 함유된 미네랄과 바다에서 맞닥뜨리는 해풍이 천혜의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한 밤감자로 불리기도 하는 등 맛이 좋고 영양도 많아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큰 효능이 있다.

한편 전북농협은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지역 제철 농산물 판촉행사를 매월 1회~2회 연중 추진 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가 익산에 위치한 홀로그램 전문기업 ㈜홀로랩 신동학 대표가 과학기술개발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사업 성과 인정

도내 홀로그램 기업 홀로랩, 과기부장관상 수상

2020년 익산 이전 후 특허 14건, 지역 인력 10명 채용

전북도가 익산에 위치한 홀로그램 전문기업 ㈜홀로랩 신동학 대표가 과학기술개발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2022년 ICT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홀로랩 신동학 대표는 홀로그램 핵심기술개발 분야 과기부 국책과제인 '고효율성 고투명성 대화면 HOE스크린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고효율성 고투명성 대화면 HOE 스크린 기술개발' 과제는 과기부 공모에 선정돼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운전자가 전방만 보고 운전할 수 있도록 주행 정보나 네비게이터 정보 등을 운전자의 전방에 보여주는 장치인 차량용 HUD를 구현하기 위해 차량 유리에 부착하는 투명필름인 HOE스크린을 개발하는 과제이다.

'HOE스크린'은 투명필름에 홀로그램을 기록해 완전 투명 영상을 표시하는 기술로, 투명 유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차량유리, 가전유리, 건물유리 등으로 확대가 가능해 향후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신동학 대표는 20년 이상을 홀로그램 분야를 연구해 온 인물로,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창업했고, 2020년에 전북 익산으로 본사를 이전해 익산을 중심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국제특허 3건, 국내특허 11건을 출원했으며, 지역 인력 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다.

신동학 ㈜홀로랩 대표는 "홀로그램 기술은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와 현실을 잇는 매개체로서, 영화 등에서 만날 수 있는 공중 영상뿐만 아니라 검사장비, 자동차 부품 등에 포함되며, 꾸준히 진화해 가고 있다"며 "열악한 홀로그램 환경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전북도와 익산시에 감사드리며, 그 간 완성하지 못한 홀로그램 기술을 완성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기업이 성과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홀로그램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민연금,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직무대행 박정배)은 21일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제도로, 공단은 ▲동반성장 전략수립 및 체계 ▲공정거래 문화 조성 및 확산 ▲협력이익 및 성과 공유 ▲창의·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기금출연 및 지원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33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26곳(19.5%)이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공단 사옥에 입주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대비 40%가량 증가한 14.4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었고, 노사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회공헌기금을 동반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11개사가 네이버, 카카오 등 전자상거래 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방송 컨텐츠 제작 등을 지원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NPS모범거래모델'을 19년에 도입한 데 이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추가로 도입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전북소재 사회적 경제 기업에(4개소) 대한 경제적 지원(기업당 1,200~2,800만원)을 통해 매출 확대(5.4억→8.4억) 및 신규 일자리(20명)를 창출했고, 사옥 내 무인정터 운영, 사내 게시판을 활용한 전국 홍보 등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구매액을 대폭 상승(26.5억→40억) 시켰다.

/최대희 기자

임신율 낮은 암소에 발정동기화 기술 적용

67%가 임신 성공해

한우 암소의 임신율(수태율)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암소의 임신 간격이 길어지면 경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수태우(수태율이 낮은 암소)의 번식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21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이 기술은 호르몬 주사를 통해 인위적으로 소의 발정시기를 맞춘 후 일괄적으로 인공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 송아지 낳는 시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한우 저수태우의 임신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더+지엔알에이치(CIDR+GnRH)'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해 임신이 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한우 농가의 저수태우에 CIDR+GnRH 방법을 적용했을 때 67% 암소에서 임신이 확인됐으며, 분만 경험이 없는 암소(미경산우)는 평균 69.6%, 분만 경험이 있는 암소(경산우)는 평균 62.5%가 임신됐다. 이에 따라 한우 농가에서 저수태우를 대상으로 CIDR+GnRH 방법을 적용하면 번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발정동기화 기술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산학기술논문지'에 게재되어 성과를 인정받았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응우 한우연구소장은 "발정동기화 기술은 한우 암소의 임신 간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한우 생산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지난해 쌀 과잉공급 시장격리 실시를"

전북농협 RPC 운영 조합장들, 정기총회서

전북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조합장들은 21일 농협전북본부(본부장 정재호)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RPC 양준섭 회장(순창동계농협 조합장)의 주재로 2021년산 쌀 26만톤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하도록 촉구했다.

지난해 쌀 생산량 388만톤은 수요량 대비 31만톤 공급 과잉 상태로,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2월 8일이 돼서야 20만톤 1차 시장격리를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실시했고, 이 마저도 14만5,000톤 밖에 낙찰되지 않아 쌀 값 하락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이다.

전북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조합장들은 21일 농협전북본부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조문 개정과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 매입 방식으로의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양준섭 회장은 "전북농협은 지난 해 공급과잉에도 도내 쌀 생산량의 55%를 매입해 농가소득 증대와 쌀 산업기반 유지에 노력하고 있으나 쌀 값 하락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1차 격리 후 잔여물량 12만 5천톤 및 추가 격리 물량 13만 5천톤 등 쌀 26만톤 시장격리를 위한 농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쌀 소비 감소, 수급 불균형, 산지 쌀값 하락, 재고 증가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서 조속한 2차 시장격리,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국가예산 반영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농축산물 답례품 선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가정의 달 맞아 'JB 플랫폼' 사전예약 이벤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VIP키트 특별증정 행사인 'JAY-B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고객들을 위한 감사의 마음과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했으며, 5월 매주 수요일 'JB플랫폼' 체험에 사전 예약한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VIP키트를 선착순 지급한다.

이번 행사 참여는 JB플랫폼 홈페이지(jbplatform.jbbank.co.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 시 닉네임 앞에 'JB'를 기입하면 된다. 특별 한정 수량 제작 한 VIP키트는 선착순 제공되며, 이벤트 기간 중 키트가 소진되더라도 JB플랫폼 체험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JB뱅크 앱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금융 교육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디지털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운영위 · 참여기관 워크숍

전북도가 21일 지역 고용위기 극복 특별 프로젝트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사업)' 운영위원회와 참여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추진동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다짐했다.

고선패 사업은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 차단을 위해 4개 프로젝트, 8개 세부사업, 15개 단위사업을 6개 지역기관이 운영함에 따라 상호간 공유 및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사에 자동차기술원 등 운영기관 6곳, 전북도, 고용부 전주지청, 익산·김제·완주군을 비롯해 산업계, 지역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을 포함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업 수행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올해 고선패 사업 개편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논의해 ▲단위사업 간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행기관 간 교류회, ▲분임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특히, 올해 고선패 사업이 위기기업 및 위기근로자의 범위 확대(자동차산업 한정→전후방산업 포함), 현장 중심의 고용대응센터 구축, 원스톱 고용연계 패키지 신설 등 대대적으로 개편된 만큼 사업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도록 당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고선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더 좋은 일자리 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고선패 사업은 지난 2020년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산발 자동차산업의 침체에 따른 고용위기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특별 프로젝트다.

지난 2년간 3,83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888개의 위기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6,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고선패사업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며 "운영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기대 이상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